

사람과 사람사이



각 도지회 순회 방문



■ 황인구 회장은 지난 6월 28일 경북도 지회회의를 시작으로 7

월중 지회회의가 열린 강원도, 부산시, 전라북도, 경기도, 충청북도 지역을 순회 방문, 우리생약살리기와 협회 발전 방안에 대해 회원들과 의견을 교류하는 한편 지회별로 소정의 금일봉을 전달, 회원들을 격려했다.



12명의 강원도 지회 회원들이 참석, 강원 지역의 특성을 살린 우리생약살리기운동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회원단합을 통한 지회조직 활성화와 이에 반하는 회비 장기미납 회원들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정리함으로써 조직을 체계화 하되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부산시지회 회의 개최



■ 김수동 부산시 지회장은 7월 10일 도지회 정기모임을 갖고

최근 한약재 유통시세 현황과 관련 정보를 교류, 이날 회의에서 부산시 지회 회원들은 협회 내부 직제규정 등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내용이 신속하게 지방에 파급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중앙회에 건의하기도 했다.

전북도지회 회의 개최



■ 이승엽 전북도지회장은 7월 11일 도지회 정기회의를 소집

하고 하반기 협회 사업방향에

경기도지회 회의 개최



■ 김성배 경기도지회장은 7월 29일 오후 6시 시흥시

공판장에서 정기 모임을 갖고 관련 정보 교류와 함께 회원간 모처럼만의 친목도모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경기도지회 회원들은 협회 발전방안과 지회 조직 활성화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으며 최근 시장흐름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류.

경북도지회 회의 개최



■ 배성한 경북도지회장은 6월 28일 영주 공판장에서 도지회 정기

모임을 갖고 여러 가지 협회

관해 회원들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북도지회 회원들은 협회가 우리생약살리기 일환으로 개최해오다 중단된 국산한약재 전시행사의 지속적인 개최 필요성에 대해 다 같이 공감하고 이같은 의사를 중앙회에 전달, 이 지회장은 또 최근 정부의 한약재 품질 관리 정책방향과 관련하여 "생산자단체인 우리협회를 통해 국산약재 전량을 소화하도록 한다면 효율적인 유통체계 구축 및 체계적인 품질관리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고 하한가 계약재배를 통한 국산약재의 수매제 도입 및 자금 지원 요청을 골자로 한 협회 차원의 대정부 건의를 제안했다.

현안문제 등에 관해 회원들과 논의했다.

제94차 이사회 개최

사단법인 한국생약협회는 오는 25일부터 26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강원도 평창군 소재 오대산 호텔에서 제94차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임명]

△박진오 경기도 오산시 공판장장(2000. 7.18일부)

[명의변경]

△한대승 부산 서구 공판장장→부산 서구 지부장(2000. 6.24일부)

[해임]

△박재호 부산 동래구(을) 공판장장(6월24일부) △심만식 충남 부여군 지부장 △김정동 대전 대덕구 공판장장

△이광수 대전 서구 공판장장 △이상국 대전 중구 지부장 △안동국 충남 공주시 공판장장(이상 6월29일부) △엄길생 경북 포항시 지부장 △신현호 경북 김천시 서부 지부장(이상 7월4일부)

[내방]

△배명철고문 △박만중고문 △남정룡고문 △김동균고문 △임연학명예회장 △정형모부회장 △장지흥부회장 △남궁희부회장 △백문기부회장 △정준웅지회회장 △김성배지회회장 △허수지회회장 △이한승지회회장 △이문섭지회회장 △이승엽지회회장 △배성한지회회장 △김정만지회회장 △김수동지회회장 △윤영환감사 △황용수이사 △안지명이사 △박영임이사 △함승주이사 △이인기이사 △박철규이사 △박종연이사 △최민남 지부장 △이진경 지부장

감사 이모저모

상반기 감사 시행

윤영환 감사는 지난달 26일부터 29일, 8월4일 총 5일에 걸쳐 협회 내부감사를 실시. 전례없는 상반기 감사 시행 여부를 두고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것이 사실. 그러나 지난 총회에서 "1년동안 이뤄진 사항에 대해 연말에 이를동안 다 파악하기는 무리가 있으므로 연중 수시감사를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다수 회원들의 의견에 따라 상반기 감사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한편 윤영환 감사와 함께 지난 31차 총회에서 감사로 선출된 김용한 씨는 회원이 아니므로 감사자격이 없다는 회장단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윤 감사 혼자 감사를 시행했다.

내부 규정 체계화 필요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들은 △협회 내부 별도규정 마련 필요 △협회 사무국 및 중앙공판장 운영체계 효율화 필요 △생산자단체로서의 역할과 정체성 확립 필요 등이다. 윤감사는 약 5일 동안 협회 사무국의 내부규정을 비롯 업무전반에 걸친 감사를 시행한 결과 여러가지 결정기준이 되는 규정 자체가 체계화 돼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 지적하고 별도의 내부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의결된 사항 미이행 많아

○...또 윤감사는 "이사회

나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임에도 구체적인 추진경과나 실적이 없는 부분이 많다"며 "예를들어 도매법인 설립 건이나 협회 홈페이지제작 건 등 회의를 거쳐 이미 통과된 사항임에도 이렇다 할 결과물이 없는 점에 대해서는 회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 윤감사는 "무엇보다도 중앙공판장의 운영체계 정립과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 했다. 이번 상반기 감사결과에 대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오는 25일부터 26일 개최될 제94차 이사회에서 보고될 예정이다.

분과위원회 구성안 제기

○... "협회운영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관심하면서 협회가 도대체 뭐하느냐는 식의 무책임한 질타는 지양돼야 하지 않을까요."

윤영환 감사는 "회원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도 뜻있는 회원들의 협회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할 것 같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동분서주 의욕적으로 일해 나가시는 회장님 모습을 볼 때 그래도 우리 협회의 미래가 보이는 것 같다"며 협회 회원들의 보다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당부하기도.

회장단회의 이모저모

운영관리규정 논의

○...지난 7월6일 협회 회의실에서는 회장단 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무국과 중앙공판장 상반기 사업실적, 만추당귀 채종포 사업현황, 한약재수급 및 유통관리규정 개정관련 대책방안과 그간의 추진경과 사항에 대한 보고와 함께 △상반기 협회 감사 실시여부에 관한 건과 △제94차 이사회 개최에 관한 건 △지부 공판장 운영 관리규정 개정에 관한 건 등에 대해 논의.

수매사업 필요한 시기

○...상반기 사업실적 보고 과정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적된 사항은 역시 중앙공판장 운영 활성화 방안.

남궁회 부회장은 소매형태 거래에만 의존하고 있는 지금의 중앙공판장 운영방식이 갖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소매시장만 하다면 자칫, 수시로 변하는 도매시세 변화에 둔감해 질 수 있다"며 "매장을 중심으로 한 수익사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남궁 부회장은 "지금이야말로 수매사업이 필요한 시기다. 인터넷시대인 만큼 과거와는 달리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수매사업 등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자체 소모량을 파악하여 적정량만을 계약재배 하는 방식으로 수매사업을 벌인다면 충분히 전망도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대량 소비업체인 한방병·의원 등과도 직거래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매장 활성화 방안 시급

○...백문기 부회장과 장지흥 부회장도 "투자된 비용에 비해 중앙공판장의 이익창출 기여도가 너무 낮다"고 평가하고 "매장 활성화 방안을 좀더 심도있게 연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

"감사 자격 없다"

○...상반기 협회감사 실시여부에 대해서는 우선, 총회에서 감사로 선출됐지만 회원이 아니어서 감사자격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김용한씨를 제외한 군산시 공판장장 윤영환 감사만 감사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감사일정은 감사와 재 논의하기로 하는 한편 제94차 이사회는 8월중 개최, 지부 공판장 운영 관리규정 개정안 등에 관해 논의하기로 했다